



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



경 동 교 회

Kyungdong Presbyterian Church

제76년 36호

창조절 첫 번째 주일

2021년 9월 5일

예배시간 1부 09:30(비대면 온라인)

2부 11:30(비대면 온라인)

만물을 새롭게 | 양지현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04(장충동 1가)

Tel: 02-2274-0161~3 Fax: 02-2277-0798

<http://www.kdchurch.or.kr>

전주 오소서 창조주 성령이여(J. Pachebel) **오르가니스트: 채문경 권사**

모임 (*는 일어서서)

***모임찬송** 69장(온 천하 만물 우러러) 1, 3, 6절 **다함께**

***예배부름** **목 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 주시고,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찬송하며,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시 145:8-10).

회 중: 아멘.

***송영** **오르가니스트**

***시편교독** **목 사:**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회 중: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목 사: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회 중: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목 사: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 받게 해주십시오.
회 중: 이스라엘에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시 125편).

경배찬송 478장(참 아름다워라) **다함께**

죄의 고백 **목 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대하 7:14),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전하지 못하고 파괴한 우리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오니,
회 중: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이 지구와 창조질서를 회복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응답송 **주여 용서하소서**(경동찬송 38장) **다함께**
주여 용서하소서 뉘우치는 우리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침묵의 기도 **다함께**

용서의 선언 **목 사:** 주님을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는(시 145:18-19)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회 중: 아멘.

응답송 **온 세상 사람들아**(경동찬송 16장) **다함께**
온 세상 사람들아 주 찬양하여라 온 세상 나라들아 주 찬양하여라

말씀

구약의 말씀 **잠언 22:1-2, 8-9, 22-23** **문 랑 집사**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얹혀서 살지만,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두고, 분노하여 휘두르던 막대기는 기세가 꺾인다. 남을 잘 보살피 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가난하다고 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맡아 주시고, 그들을 노략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시기 때문이다.

응답송 **205장**(주 예수 크신 사랑) 후렴 **다함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서신의 말씀 **야고보서 2:14-17** **공진영 집사**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혈벗고, 그 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응답송

205장(주 예수 크신 사랑) 후렴 **다함께**
나 항상 들던 말씀 나 항상 들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복음의 말씀**

마가복음서 7:24-37 **목사**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 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응답송**

205장(주 예수 크신 사랑) 후렴 **다함께**
나 항상 들던 말씀 나 항상 들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친교와 소식**기도****응답송****특송****설교****기도**

..... **목사**
..... **박연길 목사**
..... **오르가니스트**
..... **송승연 집사**
..... **“죽은 믿음과 산 믿음”** **채수일 목사**
..... **설교자**

성만찬

찬송

- 228장(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2, 4절 **다함께**
 2.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 버리니 죄 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4.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성만찬 초대

집례자

성만찬 기도

다함께

집례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회 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집례자: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회 중: 주님께 우리의 기쁜 마음을 바쳐 드립니다.

집례자: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회 중: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집례자: 창조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늘과 땅,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창조세계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창조의 질서를 회복 하셨으니,

회 중: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화해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데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응답송

거룩 거룩 거룩(경동찬송 4장) 1절 **다함께**

거룩 거룩 거룩 온 맘 다해 주 찬양 내 맘을 아시는 주님 거룩한 주님

고린도전서 11:23-26 **집례자**

제정의 말씀

성령임재의 기원

집례자

성만찬 나눔

다함께

(세례 받은 성도들은 제단 앞으로 나와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감사의 기도

다함께

우리 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 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온 피조물이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창조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평화와 기쁨을 위하여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보냄

봉헌과 찬송	449장(예수 따라가며)	다함께
*봉헌기도		목사
*보냄찬송	635장(하늘에 계신)	다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기록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		목사
*송영		오르가니스트
후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G. Slate)	오르가니스트

『경동찬송』은 찬송가 뒷편에 있습니다.

알리는 말씀

1. 교우소식

- ▶출산: Anthony Ho · 장혜리 성도(Mina Ho(딸), 8월 17일(화))
- ▶장로임직: 김아영 장로(이성철 성도 아내, 이승공 장로 · 강혜란 권사 자부/8월 22일 (주일) 미국 West Chester 연합장로교회)
- ▶출국: 윤영 교우 · 이지은 교우(윤후, 윤봄이 어린이/8월 28일(토) 독일)

2. 9월 정기당회

- ▶일시와 장소: 오늘(9월 5일) 오전 11시 당회실

3.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

- ▶일시: 오늘(9월 5일) 예배(온라인 비대면 예배)

4. 담임목사 청빙후보자 1인에 대한 공동의회(찬반투표)

- ▶투표 일시와 장소: 9월 7일(화) – 9월 19일(주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경동갤러리카페 (*9월 13일(월)과 교회 휴무일 제외)
- ▶투표자: 경동교회 등록된 세례교인
- ▶투표 개표 및 공동의회 폐회: 9월 26일(주일) 오후 1시

5. 피택 장로 교육(5)-사무 장로와의 대화 모임

▶일시와 장소: 9월 11일(토) 오후 1시 경동갤러리카페

6. 9월 예배 안내 위원

- 1부: 황인락 집사·성선용 권사, 임성호 집사·조경아 집사, 정상욱 집사, 이은희 권사
2부: 강석철 집사·이윤선 집사, 김성호 집사·김미경 집사, 김선호 집사·오영주 집사

7. 다음 주일(9월 12일) 예배 위원

기도	성경봉독			
강혜정 장로	1부	김성식 집사·김원희 집사	2부	문영일 집사·박지호 권사

특별봉헌 8월 22일

감사헌금

곽대영(감사), 김성식·김원희(감사), 김수평·임문규(범사 감사), 김영걸(감사), 박나혁(십일조), 박연길·박수미(십일조), 박재윤·한경애(아들 가족과 함께 지낸 여름 감사), 박진호·노진숙(감사), 박찬순(십일조), 신호진(십일조), 윤기호·신은애(범사 감사), 이고운(십일조), 이공진(감사), 이문희(감사), 이종인·이연숙(감사), 이주한·김성은(감사), 임승우(십일조), 임유수(감사), 임한균(감사), 주형준·이재림(감사), 채수일·김경숙(범사 감사), 함천진(故 함성구 집사 추모), 홍현기(감사), 무기명(감사)

특별목적헌금

여해기념사업 헌금

최준식·강혜정

탈북자지원헌금

곽대영

예배와 집회 안내(비대면 온라인)

부 서	성 경 말 씀	설 교 제 목	설 교 자
유치부	요한복음서 1:14	따뜻한 빛	최고권 전도사
어린이부	요한복음서 1:9-11	참 빛으로 오신 주님	박재준 전도사
중 · 고등부	요한복음서 1:1-14	세상의 빛	김민정 목사
경청(청년)	요한복음서 1:1-14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박선교 목사

‘예배’ 영상 안내

경동교회 홈페이지: www.kdchurch.or.kr

유튜브 검색: 경동교회

헌금(주정, 십일조, 감사, 목적헌금) 안내

계좌: 우리은행 1005-403-855152 한국기독교장로회경동교회

*헌금을 입금하실 때 ‘이름’과 함께 ‘헌금내용’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 ○○○십일조, ○○○감사, ○○○목적

다음 주일 말씀

9월 12일(창조절 두 번째 주일)

성 경: 구 약(잠언 1:20-33)

서신서(야고보서 3:1-12)

복음서(마가복음서 8:27-38)

설 교: “제 궤에 배부른 사람”, 채수일 목사